

“춤으로 ‘이뵈고’ 화두풀어요”

심가영·가희자매 ‘慾’ 주제 창작무 발표 3월 6일 문예회관

독실한 불자 전통무용가 심가영·가희자매(40·무형문화재 제 92호 태평무 이수자)가 지난 90년에 이



◇ 나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삼은 창작무 ‘慾’의 공연장면. 3월 6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태평무·회상·살풀이춤 등 통해 인간사 희로애락 보여줘

이, 2부에서는 ‘이뵈고’ 화두를 춤으로 형상화한 창작무 ‘慾(慾)’이 펼쳐진다. 안니 가영씨가 총제작

을 맡고 동생 가희씨가 안무한 ‘욕’은 자신의 본성을 찾는 불교화두 ‘이뵈고’를 주제로 구상됐다. 40년간 펼쳐질 ‘욕’은 처음에는 이성의 세계를 보여준다. 극락의 세계, 무념무상의 정토로 인간이면 누구

된다. 그 다음 장면은 모든 삶들이 얽혀지는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과 부조화, 그 속에서 고뇌하는 나 자신이 그려진다. 마지막 장면 수행을 통해 드디어 자신의 본성을 발견해가는 중에 번뇌가 소멸되고 경정의 세계에 도달하는 과정이 잔잔하게 펼쳐진다.

이뵈고 때부터 무용에 뛰어남 재능을 보여준 이들 쌍둥이 자매는 틈만 나면 절에 가기도 하고 참선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정도로 독실한 불심을 지니고 있다. 태평무·인간문화제 강산영선생이 가장 아끼는 제자들인 이들은 “춤으로써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표현해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세계에 인도하고 싶다”는 원력 또한 지극하다. 불교계에서 초창기 공연은 최선을 위해 성심성의껏 동참한다는 심가영·가희씨는 오는 부처님오신날에도 어린이무용단과 함께 봉축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02)400-3482

이경숙 기자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마음으로 범음범패 배우고 펼쳐야”

내달 7일부터 짓소리 공개강의 송암스님

“짓소리를 개인적으로는 여러 사람에게 전수시켰으나 범음대에서 이렇게 공개강의를 갖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강의가 범패강의로는 생애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데 많이 동참해 불교전통을 잇는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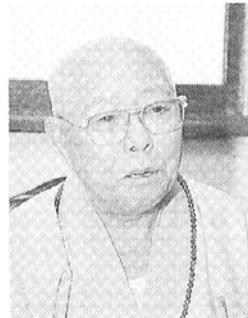
범패 인간문화제 박송암스님(82·봉원사)이 내달 7일부터 봉원사 범음대학에서 1년 코스로 매주 한차례씩 짓소리 강의를 갖는다. 짓소리는 상주권공제(2~3년) 각배제(1~2년) 영산제(2~3년) 안제비(1~2년) 공부를 마친, 그러니까 10년 이상 범패공부를 한 사람이 비로소 배울수 있는 고급 코스로, 한곡이 30분~1시간 가까이 연주되는 규모가 크고 장엄한 소리가 때문에 익히기 힘들다.

지난해 안제비 특강에 이어 짓소리강의로 불교의식 전반의 강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송암스님은 “범음범패는 배움때부터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지극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사람들은 아무라도 예전 우리 배움때보

다 열의들이 적은 것 같아요”라며 전수에는 사제 쌍방의 열의와 노력이 첫째라고 강조했다.

올해 3일간 펼쳐졌던 영산제는 해방후 1일로 축소돼 진행되고 있다. 3일영산제가 시행될 때는 꼭 한번. 지난 68년, 당시 문공부와 서울대가 영산제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자료수집목적으로 실시했던 것, 영산제의 원형을 이 시대인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3일영산제를 다시 재현하는 일은 송암스님의 깊은 원력이다.

마침 태고종이 최근 문화유산의 해를 기념하여 오는 10월 영산제를 ‘국제(國祭)’로서 봉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송암스님 등 인간문화제 스님들이 총출연하는 3일영산제의 장엄한 영산회상을 보게 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속>



불심시심 <78>

지는 꽃 쓸지 않다

相送門前路 (상송문전로)	보내고 맞이하는 문 앞 길 (상송문전로)
落火人不掃 (낙화인부소)	지는 꽃 사람들 쓸지 않건만
(낙화인부소)	
春風便有情 (춘풍변유정)	봄바람은 그래도 정이 있어서
(춘풍변유정)	
吹散溪邊草 (취산계변초)	시냇가 풀 언덕에 불어보내다
(취산계변초)	

위 시는 허정대사(虛靜大師 1670~1733)가 지은 차츰진사 중익운(次洪進士重益韻)이라 한 시이다. 대사의 법명은 법종(法宗)이고 허정은 그의 당호이고 속성은 전(全)씨이다. 묘향산에서 월저(月渚)대사에게 참학하여 장경을 섭렵하였고, 월저의 수제자인 설암(雪巖)대사에게 참여하여 현지를 듣고 인가를 받았다.

대사는 허정을 단순한 당호로만 삼았던 것이 아니요, 자신의 생활 신조가 바로 허정이었던 것이니, 스스로 일컫는다는 ‘자경(自警)’이라는 시에서, 굳은 철처럼 뜻을 지키고 청결한 얼음처럼 정신을 집중 비고 고요할 잘 지켜 물이 맑아지듯(守志堅石 神神 潔水 善保虛精 亦如水澄)이라 하였으니, 허정은 대사의 신조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사의 시도 이러한 신념으로 일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방할 듯하다. 대사의 시집의 서문은 바로 이 점을 중시하고 있다.

“대사의 시는 체법이 유순하고 태도가 평담하여 모든 욕심이 다 비었고 모든 이쁨이 다 끊겼다. 인자한 구름이 평화롭고 지혜의 햇살이 선명하니 이것은 어찌든 성정에서 근원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으니, 시문 자체도 허정의 담담한 그 자체라

는 것이다. 위의 시는 이러한 허정의 정형이라 하였다. 제목이 남의 시에 차운한다 하였기에 인간적 세사의 일단을 노래할 것 같으나, 오히려 불멸의 담담한 한 순간을 노래하고 있다.

나그네를 맞고 보내는 문 앞의 길, 보내고 맞이함이 함께 이루어지는 길이니 외길일이 분명하고, 외길이기에 오히려 말끔하게 쓸러 있어야 일상사에 맞는 것이다. 그러하건만 쓸지 않았다. 물론 꽃잎이기에 그랬다 하지만, 이 자체가 꾸밈이 없는 허정(自警)의 일상이니, 따라서 이러한 일상은 무정(無情)으로 비쳐지게 된다. 그러기에 다음 구에서 불바람이 오히려 유정으로 표현되었고 그 유정의 정다움이 꽃잎을 이리저리 물아 다스곳이 풀살에다 감추어 준다. 유정이야 할 사람은 무정(無情)으로 변하고 무정(無情)의 불바람이 유정(有情)으로 변하였다.

이렇듯 이 시는 전후 두 단락으로 대칭되어 인간적 무정과 자연사물의 유정이 일상적 논리를 뒤엎으며 산사의 허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작자의 의도적 꾸밈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산마음의 정적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음이 역시 스님들의 작시적 우월성이라 하겠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석정회 신춘 차례시연 (석정원차(茶)회(강주 선혜스님)에서 시연차례 의식인 불전헌공차례와 전통생활차의식인 풍류차례를 발표했다. 석정원차회원 및 각 차 관련단체 회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발표회에서 선혜스님이 ‘차례’와 ‘절다례’에 관하여 주제의 문헌발표를 하고 뒤이어 불전헌공차례와 풍류차례의식이 시연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초봄 수놓는 찬불하모니”

송언합창단 3월 4일 음성공양의 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주최 대구필하모니 협연

영남권 유일의 남녀혼성 합창단인 송언합창단(단장 이현환)이 오는 3월 4일 저녁 7시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2회 음성공양의 밤을 개최한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해계)이 주최하고 대구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이번 공연에는 대령스님(한마음선원장)의 성시에 곡을 붙인 ‘무상계승’ ‘빈손’ ‘입의 소식’ 등 선법가와 부처님일대기를 표현한 교성곡 ‘붓다의 노래’가 선보여 초봄의 밤하늘을 싱그러wie 수 놓는다. 또한 한마음 어린이합창단이 찬조출연해 ‘붓다의 메아리’ ‘우리도 부처님같이’ 등을 부른다.

남성 30여명을 포함 80여명으로 구성된 송언합창단은 매주 1~2회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에서 합창모임을 가져왔으며 지난 1992년 창단 이래 진주예술회관 콘서트, 안양예술회관 불교음악제 등 각 법회와 무대에서 그 기량을 발휘하며 음성공양에 헌신해 오고 있다. (053)426-2779

대구=이윤호 기자

어른들에게도 꿈을주는 아동극

동쪽나라, ‘꽃들에게...’ ‘오세암’ 공연

28일~3월 2일 두레극장

국내유일의 순수 어린이전문극단 동쪽나라(대표 김형균)는 오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서울 두레극장(3673-2965)에서 아동극 ‘꽃들에게 희망을’과 인형극 ‘오세암’을 공연한다.

‘꽃들에게 희망을’은 영육과 정민 두 남매가 간간히 들려주는 예쁜 애벌레와 나비의 사랑이야기를 통해 일상에 지쳐 어릴 적 꿈을 잃어버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어른들의 닫힌 마음에 따스한 향기를 불어넣는다는 내용. ‘오세암’은 천

진한 다섯살바기 소년 길손과 장님 누나 감이의 맑고 아름다운 마음이 부처님에게로 닿아 길손은 부처님이 되고 감이는 눈을 뜬다는 내용의 인형극이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에게는 풍부한 상상력과 다양한 재미를, 피곤과 짜증으로 어두워진 어른들의 눈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감동을 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홍영 길혜연 이미희씨가 연출하고 김현철 지예슬 임지혜양등 30여명의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이번 아동극은 오전 11시 오후 2시 공연된다. (02)263-8438



◇어린이들이 꾸미는 동화같은 무대 ‘꽃들에게 희망을’의 한 장면. 상상력의 나라를 마음껏 펼쳐 가는 이극은 어린이들의 천진한 동심을 통해 어른들 세계까지 영보게 한다.

남양주유적 무료관광

남양주시는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매주 금요일 시청버스를 이용한 무료관광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남양주의 이름있는 문화유적인 봉선사 흥국사 수종사 등 명찰과 흥릉, 다산정약용선생유적지 등 30여곳의 유적을 돌아보는 이번 답사는 시민들의 호응이 커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 (0346)592-0665

▶ 동부코스=평내공립-모란미술관-이순지묘-묘직사-구선도방-유방선생묘-수종사-다산유적지-한화선생시도비-수석리토성-조달생묘비

▶ 서부코스=흥릉-사릉-양지향나무-광릉-봉선사대종-순강원-봉영사-여경구 가족-흥국사대웅보전-덕흥대원묘-불암사-불암산호랑이 은거동굴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시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이상),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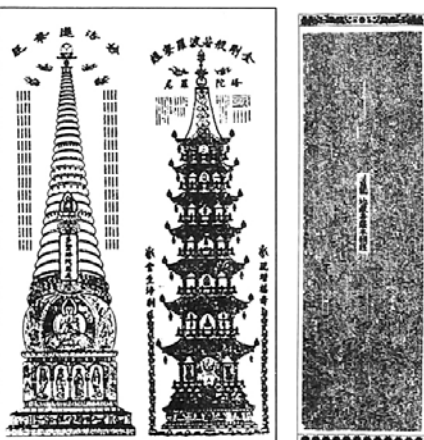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불탑다라니를 사용하면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佛塔다라니로서 스님과 불자들이 실제 겪었던 영험 사례집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신비의 불탑다라니와 지장보살 본원경”



■ 고급 백색공판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63cm x (세로) 160cm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회장 혜천)**
부설 : 바라밀간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 불가신 분들에게 믿어주고 믿어주고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금강경 탑다라니. 이 불탑다라니를 현세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을 찾고 소원을 성취하고 일체재해를 면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스님들이 평원으로 시도해보았던 불탑다라니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은 규명하고 차가되는데 한가닥 의심이 없고 평함으로써 실제로 체득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진실로 믿거나, 사용하여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는 불자들이,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100% 경면주사를 사용하여 조성한 금강경 신탑다라니와 묘법화경 다보탑다라니, 지장보살본원경 사경본의 위신력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300여 사람에게서 주로 스님들을 통하여 불자들에게 보급되어온 본회의 불탑다라니는 사용한 불자들의 대부분이 한결같이 그 불가사의 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을 직접 체험 하였고 스님들이 전해주시니, 본회에서는 그 사례들 중에서 대략적인 것만 모아 책자를 만들어 인연당은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 스님을 불탑다라니 사용방법책자, 신도용 영험집 책자, 지장경 사경본을 이용한 조성대대신축연속 일체지명가 천도방법, 수자영가 천도방법, 수자영가 불명짓는법 등이 수록된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길게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방하여 그것을 피하게 하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사용해주시고, 또한 조성령과 수자영가인 낙태, 자연유산, 사산아들의 원혼들을 불명을 지어 위패를 안치시켜주셔서 확실하게 천도시켜주는 방법, 등을 제시해 드림으로서 다스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들에게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이루고자 하는 간절할 소원이 있는 분
2. 대환입시생을 둔 학부모
3. 각종질환이나 원인을 모르므로 고통받는 분
4. 정신질환이 있는 분
5.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분
6.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
7. 심재나 관재가 있는 분
8. 집안이 이상하게 시끄럽거나 집안풀리는 분
9. 고사나 승진시험을 앞 둔 분들은 꼭 받아보십시오. 큰일이 될 것 입니다.

신토불이 방생

우리 강산과 환경을 보호하며 우리 물고기를 방생합시다

- 배달도 해드립니다 -

자라, 잉어, 가물치, 미꾸라지

연락처

전화 : 272-3596~7
Fax : 363-3597
자택 : 363-7067
휴대폰 : 017-234-359-7

(동대문 광장시장 47호)

은하상회